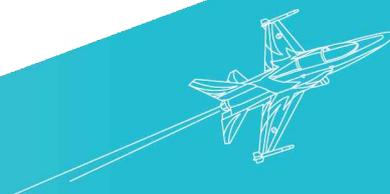


MBC경남 '포커스 경남'

(2023. 5. 2.(화) 15:00/MBC경남)



Sacheon



포커스 경남

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백윤희입니다.

<진행자 프로그램 소개 오프닝 멘트>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해

분주한 발걸음을 하고 있는

박동식 사천시장과 함께 합니다.

-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함께 인사)

질문 1

최근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해 시장님께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만나서 협조를 요청하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많이 봤는데요.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예,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위해 사활을 걸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9일, 20일 국회를 방문해서 15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우주항공청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특별법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수시로 국회와 정부를 찾아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개청과 우주강국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천시와 경남도의 노력과 준비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국회의원들을 만나셨는데요.
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예, 연내 개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아직 부족하지만,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20여 명에 가까운 국회의원들을
잇따라 만나서 우주항공청 설립의 필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사천 설립 타당성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줬으며,
자기 일처럼 두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주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당 대표로부터는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받았고,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에게도
임기 내 특별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질문 3

사천 우주항공청,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직접 우주항공청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그 후 사천 유세에서 직접 우주항공청은 사천에 설치해야 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과정들을 좀 짚어 볼까요?

우주항공청은 저의 핵심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지난해 1월 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우주항공청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두 달 뒤인 3월 3일 삼천포대교공원에서는 KAI가 있는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되었으며, 11월에는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와 함께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이 출범하였습니다.

현재, 정부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며, 소관위인 과방위에서 **5월 중에 심사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4

처음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이야기 했을 때 외부에서는 의외라는 이런 반응들도 있었거든요. 왜 사천이 우주항공청의 최적지로 꼽혔는지, 시장님께서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 사천시가 우주항공청 최적지로 결정된 배경은 세계적인 뉴스페이스 시대의 흐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천은 우주영역에 민간중심의 산업 생태계가 자생적으로 잘 조성된 도시입니다. 사천의 우주항공산업 생산액 점유율은 2020년 기준으로 전국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주활동에 대한 영남권 매출액 또한 전국의 20% 정도로 수도권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리고, 사천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즉, KAI를 비롯해 다양한 관련 기업이 집적해 있는 등 우리나라 우주산업 중심인 경남에서도 핵심지역입니다.

특히, 우리 사천시는 2015년부터 우주항공과를 설치해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는 등 전폭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여건과 행정적인 노력 때문에 한국형 나사, 우주항공청 설립의 적임지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질문 5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선다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질 것 같은데요. 사천 우주항공청, 그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우주항공청 사천설립은 지역균형발전의 모범적인 모델로서 지방시대를 개막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의 특징과 기관의 특성이 완벽하게 부합하는 최초의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특히, 민간주도의 우주개발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뉴스페이스 즉, 민간주도의 우주산업이 대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올드스페이스, 공적영역 위주로 우주산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뉴스페이스 민간주도의 우주개발 시대를 열어나 가야 하는데, 오랜 역사를 가진 외국기업들과 달리 정부 의존도가 너무나 높은 상황입니다.

사천에 들어설 우주항공청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성공적인 민간주도의 우주개발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6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지면 경남의 입장에서도 반가운 일이 아닐까 합니다. 자연스럽게 서부경남, 그리고 경남에도 영향이 있겠죠?

예. 우주산업은 타 산업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산업으로 경남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전체에 매우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도 기억하고 계시는 누리호 발사에는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업체만 해도 300여 곳이 넘는다고 하는데, 전자, 엔진, 토목까지 다양한 산업영역에서 동반 상승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형 나사인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우주경제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면, 경남을 넘어 전국으로 그리고 모든 산업영역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7

현재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어떤 조직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으로 설치되지만,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들을 특별법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는 임기제 공무원 수 제한 해제, 보수상한 해제, 연구성과 보상 등 기존 공무원 조직과 다르게 유능한 인재 영입과 탄력적인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많은 혜택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조직과 예산에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청장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고 합니다.

질문 8

정부가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보면 우주항공청 조직을 전문가를 중심으로 조직을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 눈에 띄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공무원 조직의 유연화와 자율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주항공청 설치에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의 유연화와 자율화가 담긴 혁신적인 청사진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외에 유연한 조직과 관련된 사례가 충분히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 9

사실 그동안 우주항공청 설립을 두고 대전과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별법에는 우주항공청 설립지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예, 이번 특별법에는 우주항공청의 설립지역이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는 계획이 바뀌거나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 조직의 경우에는 법률에 설립지역을 명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명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이 포함된 우주경제 로드맵을 직접 발표하였고, 120대 국정과제에 우리 사천을 설립지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사천 외에 다른 지역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질문 10

총청권과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우주항공청의 설립지로 대전을 주장하면서 특별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을 내놓았습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소관위인 과방위 간사이고 지역구가 대전이기도 한데요. 대전의 경우에는 “우주 관련 시설이 대전에 모여 있다. 그러니 우주항공청은 대전이 최적지다” 이런 논리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대전에 소재한 연구기관들의 주된 역할은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고도의 우주를 연구하는 것이고, 사천에 설립될 우주항공청은 민간주도의 우주생태계를 완성해나가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돕고 보완해 나가야 하는 공생의 관계는 맞지만, 서로 추구하는 길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기관들이 지금까지처럼 위성개발, 발사체개발 등 이런 분야를 수행해서는 절대로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민간에서 수행하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거나, 수익창출이 어려운 사업들은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올바른 역할입니다.

이렇게 역할분담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발 앞서서 우주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외국기업들을 조금이나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11

우주개발 분야 전문가들이 우주항공청 입지로 대전·세종권을 선호한다는 설문 결과도 나와 있던데요. 그래서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조성되면 관련된 고급 인력들이 과연 내려오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설문조사는 일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선호도 조사에 불과할 뿐 입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전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단순히 비전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파격적인 혜택을 담고 있습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비전은 우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고, 우수한 인재들도 분명히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는 사천으로 모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12

아무래도 세종시와 비교하면 사천시가 정주여건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이것 때문에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건 아닐까요?

예, 정주여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현실이고, 세종시와 비교하면 현재 사천의 정주여건이 다소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방근무가 핸디캡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사천에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를 만들겠다는 박완수 도지사의 의지가 확고합니다.

세종시처럼 주거와 교육, 교통 등 정주여건을 잘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전문가들이 새로운 도시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 시와 함께 범부처가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정부에서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기회발전 특구, 교육자유특구 등 여러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정책들과 잘 연계해서 획기적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3

얼마 전 최원호 우주항공청설립단장이 우주항공청 입지에 대해 사천 외의 다른 지역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는 없겠죠?

예, 우주항공청 입지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우주항공청 경남 사천 신설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사천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부의 특별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만 하는데, 자칫 지역이기주의와 갈등으로 법률안 통과가 지연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질문 14

사천시도 경상남도와 함께 우주항공청 개청을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예, 우리 사천시는 미래 우주항공도시로서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경남도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야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거점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적인 우주항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입니다.

우리 사천시는 경남도와 힘을 합쳐서 우주항공청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주거와 교육, 교통, 문화 등 정주여건이 완비된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질문 15

우주항공청이 사천이나, 아니냐를 두고 이야기를 많이 하다보니까 정작 사천에서는 우주항공청이 어디에, 어떤 규모로 들어오는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우주항공청의 규모와 위치는 정부가 결정하게 되는데, 우주항공청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인력과 조직, 그리고 시설에 대한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치 또한 기관의 역할, 직원들의 수요 등 복합적 요소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는 우주항공청이 최적의 장소에 위치하는 것은 물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한 후보지 자료와 추후에 필요한 자료들을 완벽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부지 확정 이후에 진행해야 하는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6

사천이 진정한 우주항공도시로 거듭나고 있는데, 도시 인프라나 정주여건 개선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우주항공청 설립 확정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지정으로 우리 사천시는 우주항공산업 중심도시라는 위상을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심어주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글로벌 우주항공 도시로 진입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부터 도시발전전략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도시발전 기본구상, 행정복합타운 조성 방안과 정주여건 개선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주항공청의 빠른 정착을 위해 이주 직원 및 기관지원에 관한 시책 등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질문 17

가장 큰 관심사는 우주항공청이 올해 안에 문을 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주항공청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정당과 지역을 떠나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정부의 입법계획에 따라 국회 의결이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연내 개청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 과방위의 법안 통과가 첫 관문입니다.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으로 우주항공청 설치가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인 입김에 의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주항공청이 흔들리지 않고, 무사히 연내에 개청할 수 있도록
전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 18

우선 최우선 과제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를 하루 빨리 통과하는 것 같은데요. 대체입법으로 ‘우주전략본부 설치법’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라 더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학계, 산업계 전문가와 경남도민, 사천시민들께서 한 목소리로 많은 힘을 보태주고 계십니다.

이는 대전의 일부 의원들이 정부의 특별법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면서 우주전담조직이 없었던 예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대립과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우주항공 전담조직 개청이 늦어질수록 글로벌 우주경쟁에서 뒤쳐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미래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대응적인 차원에서 특별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 19

우주항공청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구요. 시장님 함께 하셨으니까 사천시 현안 이야기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최근 사천시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예, 우리 시는 최첨단 정보통신기술로 교통, 환경, 안정 등 각종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미래형 첨단도시인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분석되는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문제를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보다 효과적이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청 출범에 따른 지역 변화와 정주여건 개선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향후 새로 유입되는 우주항공 전문인력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질문 20

경상남도가 남해안을 ‘글로벌 해양관광벨리’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남해안을 낀 사천시 역시 해양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사천시는 역사와 문화,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전국 최고의 해양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바다와 산, 하늘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사천바다케이블카, 세계 희귀 어류를 한 곳에서 관람할 수 있는 경남 유일의 아쿠아리움을 비롯해서 관광명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 대관람차와 회전목마가 5월 초에 상업운영에 들어가고,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에 위치한 늑도, 신도, 마도, 저도를 잇는 무지개 생태탐방로가 조성된다면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리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사천시는 경남도의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리 육성사업에 맞춰 ‘머물고 쉬어가는 섬 관광, 어민과 상생하는 해양관광도시 사천’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 등 각종 해양관광개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21

가까운 지자체와 관광패키지 상품 개발을 하는 우호 협력은 관광분야에서 시너지 효과가 큼니다. 사천시도 인근에 진주시, 하동군, 남해군, 고성군, 통영시 등을 오면서 함께 들르는 관광객이 많은데요. 이웃지자체와 관광분야 우호협력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사천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66%가 경상남도, 부산 등 인근 지역의 관광객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이웃 지자체인 진주시, 하동군, 남해군 등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관광 상품 개발과 홍보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과 함께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를 구성해 통합 광고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는 남해안남중권 8개 시군과도 연계해서 ‘남중권 누비 GO 투어’를 2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인근 지역의 대형 축제를 찾는 관광객이 우리 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연계 홍보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질문 22

인구감소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의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사천시 역시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사천시 차원의 인구 대책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구감소는 수도권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의 공통의 문제입니다.

우리 시도 여느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감소로 인구 10만이 붕괴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저출산 문제와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주항공청 조기 설치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인구절벽의 위기를 탈출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우수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활성화하면 지역활력과 함께 생활인구가 증가할 것입니다.

질문 23

오늘 사천 우주항공청을 주요 이슈로 사천시 현안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남길 말씀이 있다면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MBC경남 시청자 여러분.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여야를 넘어 현재 발의된 정부법안을 바탕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보완할 것이 있다면 적기에 보완하여, 우주항공청 개청에 걸림돌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오랜 우주항공인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인 셈법 때문에 우주전담조직을 신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이 향후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속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C 클로징 멘트